

히말라야에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

아래 야생 동물 친구들의 사연을 읽고,
답장을 쓰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다음 장에 있는 편지지를 활용해 써 보세요.



안녕?

난 동물원에 살고 있는 수컷 사자야.

배부르지만 갇혀 지내는 동물원 사자, 배고프지만 자유로운 야생 사자.

너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니?

만약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내게 선택할 기회가 생긴다면

난 주저 없이 이곳을 떠날 거야.

안녕! 난 매미야.

맨날 “멤멤멤.” 하면서 달콤한 여름 단잠을 깨워서 미안해.

날씨도 더운데 요란한 소리가 들리면 무척 신경에 거슬릴 거야.

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어. 이렇게 맨날 울고 있어야 그나마 암컷들이

모여서 서로 짝을 지을 수 있거든. 난 마음이 늘 바빠.

항상 ‘오늘이 아니면 안 돼!’하는 쫓기는 느낌으로 살고 있어.



헤이, 요! 난 개야.

사람들은 우리를 품종으로 나누는 걸 좋아해.

국제 공식 인증으로 70여 개 품종이 있구나 뭐라나.

너는 어떤 종을 좋아하니? 개라면 다 좋아한다고?

오, 내가 가장 듣고 싶은 정답이야! 칭찬해.

어떤 사람들은 품종을 마치 개의 계급인 양 생각하기도 하더라.

우린 모두 똑같이 사랑받고 싶은데 말이야.



받는 친구

에게



보내는 친구

가